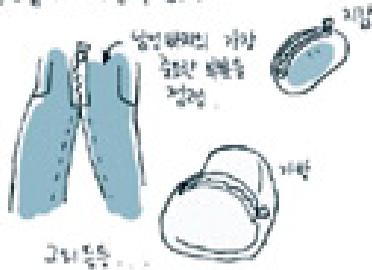


# 아무도 몰랐던 물레발명이야기

「지퍼」, 1893년 김익재

우리의 생활함에 엄청난 활용도를 보이는 '일명·자관' 즉 '지퍼'는 대단한 활용도가 아닐 수 없다.



마침 이러한 감명을 받게 된 주경은 가을에 '주커'라는 문근을 얻어 냈었다.



하지만 지퍼를 지퍼라 불러다보니 여간 불쾌해 보이게 아니었다. 대충 뭐시러가 뒤에서는 잡다하게 다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별 방법이 없었다.



지퍼는 최근에 '지프'에 의해 1893년 사카모 히로유키에 출품되어 주목을 받았다.



위치는 문근을 지프수에게 달려가 지퍼는 사들였고.

우유리~ 이제 문근 없애 줄이로



하지만 실감은! 그 유명한 문근제신!! 위치는 1893년이나 영구히 지퍼와 문근제신에 대한 발명 하였다.



하지만 이게 웬일. 수위의  
반응은 영 실정하게 아냐?!



18년간의 노력과 정성이 물거품이  
되었다고 생각한 그는 결국 자신이  
발명한 기계를 팔기로 했다.



그러던 어느날 브루클린에 사는  
어느 양복점 주인이 이 기계를 보게  
되었다.



양복점 주인은 결국 워커에게  
아주 싼 가격으로 기계를 사들였고  
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 
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였다.



그후 18년째 굼리치 회사는 이 지퍼를  
점퍼에 붙여 상품화 했는데 이 역시  
대 성공이었다. 굼리치 회사는 이름 그대로  
좋은 부자회사로 된 것이었다.



오늘날 지퍼의 활용도는 앞서  
말한 것라 같이 이루 말할 수 없이  
다양하다. 지퍼야말로  
이 시대의 위대한 발명품이 아닐까?

